

회원사 동정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 제2호기 2주기 연속 무고장 운전 달성

한국남동발전은 삼천포화력 제2호기가 2004년 1월 25일을 기하여 준공 이후 세 번째로 일주기 무고장 운전을 달성하고, 2004년 1월 26일부터 A급 계획 예방정비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 6월 15일 발생한 고장 정지 이후 1,319일 동안 무고장 연속 운전을 하였으며, 또한 전회 계획 예방정비 공사 준공(2002년 2월 23일) 이후 이번 계획 예방정비 공사를 위한 발전 정지 때까지 단 한건의 고장 정지 없이 702일간 가동된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룩한 따의 결실이며, 한 단계 높은 발전설비의 운영 및 정비기술을 입증하는 것으로 발전시장에서 한국남동발전의 위상을 드높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계획 예방정비 공사에는 발전설비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후설비 보강공사와 환경보존 설비인 탈황설비 설치를 위한 연계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이번에 추진하는 계획 예방정비 공사의 완벽한 시행으로 3주기 연속 무고장 달성은 물론, 지속적인 무고장 운전을 시현(示現)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발전단지를 이룩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다지고 있다.

두산중공업

원자력 이용한 해수 담수화 기술 사업 추진

두산중공업이 한국원자력연구소와 공동으로 원자력을 이용한 해수 담수화 기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세계 최대 담수플랜트 공급업체인 두산중공업과 한국원자력연구소는 29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이 분야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협약을 체결했다.

두산중공업과 원자력연구소는 이 협정에 따라 해수 담수화 등을 위해 지난 2002년 우리 고유 모델로 개발한 '일체형 원자로(SMART)'의 산업화와 해외시장 개척 및 수주를 공동 협력하여 추진하게 된다.

일체형 원자로는 다목적 중소형 원자로로, 원전 터빈에서 사용한 폐증기를 활용하여 비닷물을 증발시켜 높은 순도의 식수 및 공업용수를 1일 4만 톤씩 생산할 수 있을뿐 아니라, 10만kW 정도의 전력도 생산하는 안전하고 경제적이면서 친환경적인 최첨단 원자력이다.

두산중공업은 일체형 원자로의 기술 검증을 위해 원자력연구소 등과 파일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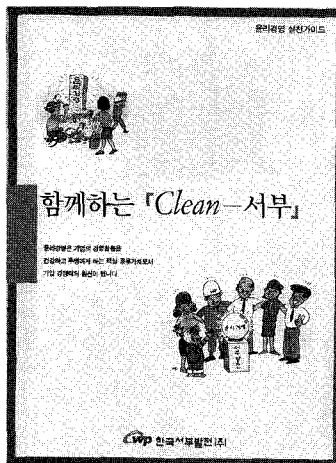
플랜트 건설을 추진키로 했으며, 2008년까지 총 2천500억 원이 투입되는 파일럿 플랜트 건설사업비의 70%인 1천750억 원을 부담할 예정이다.

오는 2011년쯤 우리나라는 약 20억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체형 원자료를 이용한 해수 담수화 사업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미래 식수원 확보와 함께 소규모 전력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물이 부족한 중동, 북부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국가 수출전략 품목으로도 부상할 전망이다.

두산중공업 김태우 전무(원자력BG장)는 “상호 협력협약서에는 앞으로 국내외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의 개척이나 수주, 기술개발 등에 상호 적극 협력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전문인력 및 기술, 정보 교류 그리고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서부발전

윤리경영 실천 가이드북 『함께하는 클린 서부』 발간



한국서부발전 윤리경영사무국은 1월 19일 직원들의 윤리경영 실천 가이드북 『함께하는 클린 서부』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1·2부와 부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는 윤리경영의 필요성과 실천 방법 해설, 2부는 윤리경영현장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사례 예시, 부록은 관련 법령과 그 동안의 윤리경영 실천내용을 확보로 소개하고 있다.

이영철 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기업윤리는 직업윤리를 출발점으로 하는데, 건전한 인생관과 직업관을 바탕으로 한 서부인들의 도덕성 확보가 자산으로 축적되면 기업의 경쟁력도 올라간다”고 강조했다.

했다.

또한 ‘윤리는 편안하게 잠잘 수 있도록 양심을 지켜주는 것’이라며 ‘양심에 입각한 의식 변화와 행동 혁신으로 관행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문화가 현장까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하고, ‘클린서부의 변화가 협력기업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리경영사무국은 이 가이드 북이 실질적인 윤리경영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장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신입사원반 교육교재와 초급간부 임용고시 문제 출제 자료로도 사용할 계획이다.

한국남부발전

투자예산 상반기에 집중 집행

한국남부발전은 정부의 경기부양 시책에 부응하여 2004년도 투자예산의 약 70%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한국남부발전은 올해 투자예산 총 2,027억 원 가운데 1,358억 원을 1/4분기 826억 원, 2/4분기 532억 원으로 나누어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하고 예산 시행계획을 확정지었다.

이를 위해 한국남부발전은 부산복합화력을 당초 2004년 6월 말에서 2개월 앞당겨 4월에, 한경풍력은 당초 2004년 4월보다 1개월 앞당긴 3월에 준공기로 결정했다.

특히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해안에 6MW의 용량으로 건설되는 한경풍력발전단지는 올 4월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향후 20MW까지 증설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남부발전은 올해 들어 경영목표를 설정하면서 ‘발전회사에서 종합 에너지회사’로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남부발전은 에너지산업부문 연구개발·대체에너지 개발과 해외사업 진출을 통한 에너지 부문의 성장 동력을 선도하고, 내부적으로는 경영 혁신과 노사화합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여 수익성과 성장기술력을 고루 갖춘 세계적인 종합 에너지회사로 발돋움해 나가기 위해 모든 경영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한국남부발전은 약 2,0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으며, 작은 설비 용량 규모에도 불구하고 발전회사 중에서 최다의 발전량과 열효율, 이용률 부문 1위의 우수한 실적을 기록했다.

회원사 동정

한국동서발전

직원들에게 금강산 연수기회 제공

한국동서발전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2박 3일간의 금강산 체험연수를 시행한다.

한국동서발전은 올해 10차례에 걸쳐 총 360명의 직원을 선발하여 연수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29일 회사발전에 기여한 유공직원 50명이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해 1차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모범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금강산 관광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조직의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한국동서발전은 3월 이후부터 연수에 배우자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어서 직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까지 골고루 혜택을 받는 '가족 감동경영'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가족감동경영'은 한국동서발전이 지난해 7월 선포한 중기경영비전 'ACE 2007'과 연계하여 내부의 결속이 우선되어야 조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이용오 사장의 경영 철학이 바탕이 된 것으로, 회사를 '기쁨과 보람 그리고 화합의 일터'로 만들어 보겠다는 한국동서발전의 의지가 담겨있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회사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선발하되 되도록 많은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차별 연수 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중부발전

발전설비 정비업체 등록관리 제도 개선

한국중부발전이 발전설비 정비업체 등록관리 제도를 개선하여 협력업체 진입장벽 완화와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발전설비 정비업체 등록관리 제도는 발전소 신뢰성 품목(고장시 출력감발 및 정상운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발전정지에 영향을 주는 품목이나 대상) 정비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하여 기술 및 품질보증 능력을 평가하여 정비업체로 등록 관리하는 제도로, 전사적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정비업무의 표준화와 정비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지금까지 각 발전소에서 특정 등록기간(년 1회) 동안 등록신청을 접수해 왔던 것을 본사 담당부서(사업처 자재총괄팀)에서 2004년 1월 2일부터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업체 심사에 있어서도 각종 증빙서류를 생략하며, ISO9001 등 품질인증을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생략하는 등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정비업체관리시스템을 구축(2004년 3월말 예정)하여 등록 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심사 진행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함으로써 업체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중부발전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력업체 관리를 기반으로 사업수행 실적이 우수한 발전설비 정비업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발전설비 정비기술을 협력업체와 공유하여 우리나라 전력산업 기술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LG산전 2003년 매출액 8천683억 원 달성

LG산전은 2003년 경영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액 8천683억 원, 영업이익 1천53억 원, 경상이익 △614억 원, 순이익 △55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경영실적과 비교하여 매출액 5.3% 신장, 영업이익 4.2% 감소, 경상이익과 순이익은 적자로 전환한 것이다.

지난 해 4분기(10~12월) 실적은 2002년 4분기에 비해 매출은 16% 신장한 2,653억 원, 영업이익은 43%신장한 336억 원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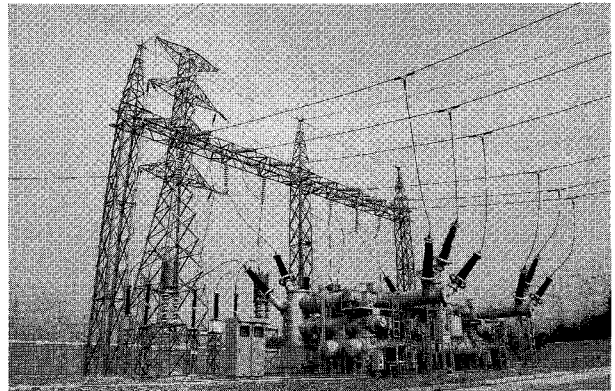
LG산전 관계자는 경상이익과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된 이유에 대해 '영업권 상각액 474억 원과 LG카드 관련 정산 손실 1천291억 원을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이와 같은 비경상적 손실을 제외할 경우, 1천151억 원의 경상이익을 실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LG산전은 이와 같은 비경상적 손실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현대중공업 인천공항철도 전력공급설비 턴키공사 수주

- 전철용 AC 전력공급설비 국내 최초 일괄 턴키 수주

현대중공업은 최근 인천공항철도(주)가 발주한 인천공항철도용 전력설비 턴키공사를 수주했다.

인천공항철도는 국내 최초로 민자로 건설되는 국제공항 전철사



업으로, 21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을 경유하여 서울역까지 연결되는 총 61.5km의 복선 전철로 2005년 말 1단계, 2008년 말 2단계를 완공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번에 국내 최초로 민자유치로 진행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전철사업의 전력공급설비를 국내외 유수의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일괄 턴키로 수주함으로써 향후 증가 추세에 있는 민자 전철사업 전력공급설비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턴키로 일괄 수주한 전력공급설비는 전동차를 움직이기 위한 전기를 전 차선에 공급해 주는 설비인 가스절연개폐장치(GIS), 변압기, 배전반 등이고 설치, 시운전 역무도 포함되어 있다. 전력공급설비들은 2005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납품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은 2002년 FIFA 월드컵을 앞둔 2001년에 개항하여, 2002년에 2100만 명의 승객과 2백만 톤의 물류를 기록하여 각각 세계 10위와 세계 4위에 오른 바 있다.

